

“법등이 끊어진 폐사지 복원 제승하는 일은 불제자 의무”

총무원장 스님 흥전리사지 방문 “법령 개정도 고민”

9세기 통일신라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정병 2점이 완전한 모습으로 발견돼 화제가 됐던 삼척 도계읍 흥전리사지 발굴현장을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방문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흥전리사지 조사기관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일감스님은 이날 발굴현장을 둘러보고 폐사지 복원 및 출토된 불교성보 보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흥전리사지를 돌아본 총무원장 스님은 폐사지 복원과 사지에서 출토된 성보보존에 대한 종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란이나 천재지변을 겪으며 법등이 끊어진 폐사지를 복원하고 계승하는 것은 불제자의 역할”이라며 “폐사지서 발굴된 유물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 한계가 있다면 법령 개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감스님은 “폐사지 발굴로 그치지 않고 정비와 복원을 통해 강원도 불교문화를 되살리고, 많은 이들이 옛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사지가 위치한 도계읍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흥전리 산92-1번지 일대에 위치한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시대 장전해 고려시대 전기에 폐사된 사찰로, 국통(國統)이 주석했던 곳으

로 추정된다. 여기서 나온 신라시대 스님의 최고위 직책인 ‘국통’, 신라의 고위직인 ‘소판’ 등이 새겨진 비편과 일본 호류지에 전하는 번과 유사한 투조 금동반, 귀면와, 곱새기와 등 유물들은 국가주도로 사용됐던 것으로, 당시 사격을 집작케 한다. 특히 지난 5월 수습된 2점의 청동정병은 완벽한 형태로, 우리나라 정병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주불전이 있는 금당지의 형태도 특이한데, 하나로 연결된 기단 위로 금당 좌우에 날개처럼 익사(翼舍)가 배치돼 있다. 동쪽 익사에는 내부에 커다란 적심(積心)이 있어 무거운 것을 지탱했던 흔적과 함께 탐비 아래를 받치는 거북모양의 돌인 귀부가 놓여 있어, 국통을 지낸 스님의 탐비가 세워졌던 전각으로 추정된다. 곡성 태안사 부도전처럼 부도나 탐비를 봉안했던 전각으로서 익사의 성격이 밝혀지면, 통일신라시대 선종 사찰에서 입적한 고승을 어떻게 추모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게 불교문화재연구소의 견해다.

한편 문화재청과 함께 전국 폐사지 현황조사 중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4년부터 흥전리사지를 발굴했으며, 8월 중순부터 탐비 주변지역 추가발굴에 나선다.

삼척=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에서 두 번째)과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일감스님(중앙)은 지난 2일 강원도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현장을 돌아봤다.

“한국불교 얼굴 찾는 일 동참” 선운사, 성역화기금 4000만원

제24교구본사 선운사가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불사에 동참해줘 고맙다”며 “큰 마음을 내준 만큼 불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사진)은 “한국 불교의 얼굴을 찾는 일인 만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성역화 불사는 조계사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 인사동을 연계해 새로운 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총본산성역화 ‘금강경 복장불사’

에도 시주자의 서원을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다.

서울 조계사는 지난 5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위한 ‘삼존불 금강경 복장불사’를 봉행했다. “신도 1만명의 서원이 담길 때까지 정성하겠다”는 주지 지현스님의 발표와 함께 10여명의 스님들은 삼복다위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통도사 등 7곳 세계유산 등재신청대상 선정 (한국의 전통산사)

11월 문화재위 평가 거쳐 결정

영축총림 통도사 등 7곳의 ‘한국의 전통산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의 전통산사’가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조건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보완된 국·영문 등재신청서를 오는 11월 중 문화재위원회 평가를 거쳐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통도사, 봉황산 부석사, 천등산 봉정사,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등 7개 사찰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을 포함해 건축술의 계승이라는 가치외에도 신앙적 기능, 수행자의 삶과 문화를 포함한 의례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종단은 지난 2013년 ‘한국의 전통산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리고, 이어 2014년 위원회를 발족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추진위원회는

“기초연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국·영문 등재신청서를 보완해 정밀하게 완성하겠다”며 “‘한국의 전통산사’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2017년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된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수행자의 언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자는 모든 허물을 스스로에게 돌릴

지언정 허물을 입 밖에 내서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사실 수행자들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허물을 말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허물에 눈이 간다면 안을 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깊은 침묵의 언어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와 연민과 사랑의 깊은 언어가 아니라면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재앙의 문이 되기 일수이고 자주 나는 새가 그물에 걸릴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수행자는 바람과 같아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올 때 스스로 왔듯이 갈 때 또한 스스로 가는 것이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은사 스님은 세상적인 일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비롭게 웃으시고 꽃꽂이 가부좌로 정진하셨을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다만 조용히 사라지기만을

바라셨습니다. 나는 그때 수행자는 저렇게 오고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계종단은 이국의 수행자 현각스님의 말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는 20여 년을 조계종 스님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2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기하는 종단의 문제라는 것들이 참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버드에서 화제가 오직 수행을 위해 왔다는 그의 언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칠고 반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행자의 오고가는 자리는 조용해야 합니다. 머무는 자리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특히 떠날 때 수행자는 더욱 수행자다워야 합니다. 시시비비로 시끄러운 세상에 수행자들까지도 말을 보탠다면 세상 어디에도 숲과 같은 침묵이 자리할 수는 없습니다.

말없이 시원한 저 숲이 마치 은사 스님을 닮아 보이는 오늘 아침입니다. 남해 염불암

황룡원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역사속의 황룡사 9층 목탑 양식의 중도타워를 완공하여, 명상과 수행, 문화행사 등이 이루어질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정신문화를 체험하는 의식교육의 장

기업·일반인·학생·신행단체 · 명상·수행 프로그램 · 문화유적 답사

황룡원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0(보문관광단지)
Tel (054) 760-0500 Fax (054) 760-0520
http://www.hwangnyongwon.com (http://황룡원.kr)

전시대관 및 공간대여 (역사 및 문화 유산/작품)